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3·1운동 기념대회”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위원회, 한국교회 총무단초청 설명회 개최



“함께 합시다”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기념대회 총무단 초청 설명회가 열린 모습. 이날 각교단 실무자들인 총무·사무총장들은 이번 대회에 힘을 모아 한국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노력하고자 다짐했다.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위원회

오는 3월 1일 오전 11시 진행되는 ‘3·1운동 100년 한국교회기념대회’에 대한 한국교회 총무단 초청 설명회가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위원회’ 주최로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 서울시 중구 소재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김진호 목사(기성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준비위원장 정성진 목사(거룩한빛온성교회)는 “연합기관과 교단들이 함께 100년 전 3·1운동을 주도한 기독교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준비한 대회”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교단이 함께 하면서 ‘이 때를 위하여 아난가’라는 느낌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을 주도한 기독교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준비한 대회”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교단이 함께 하면서 ‘이 때를 위하여 아난가’라는 느낌으로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기념대회로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정성진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준비위원장 윤보환 감독(인천영광감리교회)이 대회 개요를 설명했다.

윤 감독은 이날 “3·1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만큼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 이 민족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당시 3·1운동이 계몽운동이며, 교회가 중심이던 애국 운동이며, 청년 운동이었던 것 만큼 교회와 민중이 함께 모이는 대회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보환 감독은 “이번 대회를 위해 연합단체 대표들과 사무총장들이 다 모였고 청년운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등이 청년과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의 각계각층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대회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교회기념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3·1운동 100주년대회 한국교회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제7차 준비모임을 갖고 대회 장소를 ‘서울시청-서울광장 방향에서부터 을지로입구역까지’로 확정하는 한편 설교자에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를 최종 선정했다.

장소와 관련, 당초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예정인 ‘3·1운동 100년 한국교회기념대회’는 서울시가 3월 1일 당일 오후 2시에 서울시 주최로 진행되는

행사 준비 관계로 장소 변경을 요청했고, 한국교회기념대회를 준비해온 ‘3·1운동 100주년대회 한국교회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제7차 준비모임을 갖고 대회 장소를 ‘서울시청-서울광장 방향에서부터 을지로입구역까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국교회위원회”는 “짜임새 있고 의미 있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회기념대회”는 당초 계획대로 3월 1일 오전 11시에 준비위원장 정성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3색선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편 기념대회 진행에 앞서 관심사였던 설교자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선정됐다. 이영훈 목사의 경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그리고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교회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한국교회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 결정됐다.

또 2색선에서 진행되는 메시지는 윤보환 감독(영광감리교회)이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탐형석 목사(예장통합총회장)가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주제로 발표하게 되며 주요교단 총회장과 총무들과 기독교 주요인사들이 순서를 맡았다.

특히 이번 기념대회에는 한국교회순교자기념사업회(대표회장 정영택 목사)에서 순교자 유가족들이 참여하게 되며 일본교회 대표들도 자리하게 된다.

박용국 기자

“회중들의 능동적 기도 살리는 예배로”

‘2019 한국교회 예배를 말하다’ 심포지엄 개최

‘2019 한국교회 예배를 말하다’란 주제로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의 심포지엄이 아현감리교회에서 개최됐다. 13일 오전 9시 반부터, 박해정 감리교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와 김수는 예배 연출가가 발제를 맡았다.

먼저 박해정 감신대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한국 개신교 예배가 ‘수구’적 모습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개신교 전반은 아마 복음적 예배를 외치지만, 전통을 지키는 걸 복음적 예배라 말하긴 어렵다”며 “복음을 지키는 것과 복음을 확장시키는 걸 분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마치 전통에 반한 무슨 일을 하면, 복음을 훼손하는 일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수구와 보수는 엄연히 다른 개념”임을 전했다. 다만 그는 “예배에 있어 실험을 추구할 수 있지만, 실험보다는 복음이 먼저”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한국교회 예배의 공통점은 바로 설교를 중심으로 한다”고 밝혔다. 반면 그는 미국 UMC(United Methodist Church)의 정의를 빌리며, “주일 예배를 ‘Service and Word and Table’”이라며 “한국 교회는 Table 전통이 약하기 때문에, 설교 중심으로 치중된 듯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설교만 부각하는 게 아

닌,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선포되도록 협력하는데 있다”며 예배 혁신의 당위성을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예배란 기획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유학시절 경험을 빌려, 그는 “시리아, 북아프리카, 예루살렘, 안디옥 등 초대교회 예식서, 기도문들을 읽고 분석했지만 감동은 없었다”며 “이유는 내가 속한 예배 공동체의 상황과 맥락을 담은 진심의 기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라 밝혔다.

하어, 그는 “전통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배를 우리 공동체 맥락 안에서 반드시 기획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그는 “큐 사인에는 성경만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기획하시길 원하신다”고 했다. 덧붙여 그는 “목사님만 주도하는 것”도 아닌 “예배의 기획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한국 개신교회 성장 동력은 회중들의 능동적 ‘통성 기도’에 있었다”며 회중들의 적극적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예배는 가르침이 아닌 경험의 대상”이라며 “60-80년대 집회를 통한 성령 사역으로 말미암아, 한국 개신교도들은 비로소 예배의 신비를 체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선교사들이 주입한 예배의 형식이 아닌, ‘통성기도’라는 한국 개신교

도들의 능동적 기도로 가능했다”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생적으로 경험하게 된 계기”라고 그는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한국 교회 성장은 기도의 힘에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외국 예배자들은 새벽예배에 들리는 한국의 통성기도를 체험하고 파워풀한 성령 역사에 감동 받는다”며 “그러나 주일 예배를 참석한 후, ‘왜 그 파워풀한 통성 기도를 드리지 않느냐’고 묻는다”고 했다. 이를 놓고, 그는 “우리 교회가 지켜온 ‘통성기도’라는 회중의 능동적이고 파워풀한 기도가 형식화된 예배에 길들여지고 있다”며 “우리 예배는 기도를 하기보다 기도를 듣는 것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결국 그는 “한국 교회 예배를 수동적 기도에서 능동적 기도를 살리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 교회 또 다른 특징은 ‘중보 기도단’”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그는 “중보기도제목이 교회 전체 기도제목이 돼야 하는데, ‘중보 기도단’이 정해놓은 기도 안에 맴돌 수 있다”며 “중보기도 제목 또한 교회 전체의 기도제목이 되도록, 모든 회중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중보기도는 개인 영성, 개인 구원에만 치중된 교회 공동체가 아닌, 예배 공동체 영성을 살리는 중요한 기쁨제”라며 “그런 만큼, 모든 예배 구성원들이 자기 입술을 열어 교회를 위해 중보 하는 기도제목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찬송을 넘어 찬양하

는 예배 공동체 회복을 주문했다. 그는 “찬양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놀랍고 강한 은총”이라며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 찬양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다”고 설명했다. 하어 그는 “찬양은 능력이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한국 교회 예배 중 입을 열어 찬송하는 회중의 비율이 줄고 있다”며 “노래방에서 부를 10% 열정만 찬양에 쏟아 붓는다면, 은혜가 풍성해지는 예배가 될 것”이라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찬양대는 회중들의 찬양을 곁들여 도와주는 데 그 주안점을 뒀야 한다”며 “우리 예배 공동체가 회중 찬송을 통해 어떻게 더 큰 은혜가 임할지 고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배 순서 중 성경봉독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는 “유대교가 민족의 종교가 된 것은 성경봉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라며 “한국교회 성경 봉독은 목사의 설교를 위해 읽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선포해주지만, 결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성경봉독이 지금보다 더 의미 있게 무게가 실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안으로, 그는 “개별적으로 설교 전 개역개정판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은 후 현대인의 성경 등 다양한 번역본으로 되새김 한다”면 “말씀이 더 뿌리 깊게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더불어, 형식적으로 소홀히 되고 있는 성례전을 마음을 다해 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령이 임하셨다”며 “이는 성경에서 유

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그는 “세례의 현장은 성부, 성자, 성령이 임하는 시공간”이라며 “그 만큼 개인에게 세례는 평생 기억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집례자가 세례를 베풀 때, 형식적·당위적으로 하는 경향이 짙다”며 “물을 조금만 머리에 묻히는 정도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라지만, 세례 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전달하겠다는 마음으로 물을 풍성히 붓자”고 강조했다.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세례 받는 사람의 옷이 풍성히 젖을 정도”라고 그는 당부했다. “그 마음으로 집례를 이행한다면, 세례 받는 사람에게 그 순간 성 삼위가 평생토록 교회로 인도 하신다”며 그는 형식적 세례보다, 마음을 쓰는 세례를 강조했다.

“성찬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박해정 교수는 전했다. 그는 “목회자는 빵 앞에 성도를 볼 때, 그의 인생과 삶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며 “이 빵이 주님의 몸이란 마음으로, 성도의 이름을 부르고 여유가 있다면 도닥여 주고 안아주며 성찬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된다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신비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끝으로 그는 어거스틴의 말을 빌려,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신성한 예술 작품”이라며 “우리 모두는 창조자의 능력이 부여된 예술가”라고 전했다. 또 그는 “기도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술적 영감의

정점”이라며 “기도자는 신학자와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위대함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임에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기도로 표현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예배 중 대표 기도에 임하는 사람은 예술 작업이 이뤄지고 있던 생각으로 기도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내게 주신 예술적 영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겠다”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뒤이어 김수는 예배 연출가와 기획담당 총괄 오석진 목사가 대담하는 시간이 있었다. ‘2019 예배를 말하다’ 컨퍼런스는 7개의 실험 예배를 시연했다. 그 중 첫 번째로 ‘오라 생명의 물가’ 예배 순서가 있었다. 이를 기획한 김수는 예배 연출가를 “세례의 기억을 떠올리는 이미지로 남기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생수를 향한 갈급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향토색 겨울 이미지 위에 생수가 흐르도록 표현했다”며 “뒀 배경 나뭇가지들도 앙상해 서, 생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의 황폐함을 대변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뒤의 흐릿한 레이어 커튼은 물이 내려오지만, 확 내려오지 않는 것 같은 이미지”라며 “이러한 물의 이미지는 예배 중 생수를 갈망하는 우리 심령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그는 “이런 갈급한 심령이 말씀 선포와 만나면 생수가 곧바로 터져 나오게 된다. 현재 발기인은 2월 11일 기준 149명이 공개됐다.

노형구 기자

故 옥한흠 목사 기리며 ‘은보포럼’ 창립

은보(恩步) 옥한흠 목사(2938~2010)를 기리며 포럼이 창립된다. ‘은보포럼’이란 이름으로 오는 18일 오후4시부터 밀알학교에서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가 열린다. 이를 위해 은보포럼 발기인들은 함께 할 발기인들을 더 모집 중에 있다.

은보포럼은 취지문을 통해 “자신이 작

은 예수로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치셨던 은보 옥한흠 목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 벌써 8년이 지나간다”고 밝히고, “그분은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랑의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한 사람 철학을 가르쳐 주셨다”면서 “국회적 자훈원원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교회들과 함께 제자훈련 정신을 나누고 그런 목회철학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섬기셨고, 교경협과 한목합을 통해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 섬김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그분의 호를 따서 ‘은보포럼’이라는 이름 아래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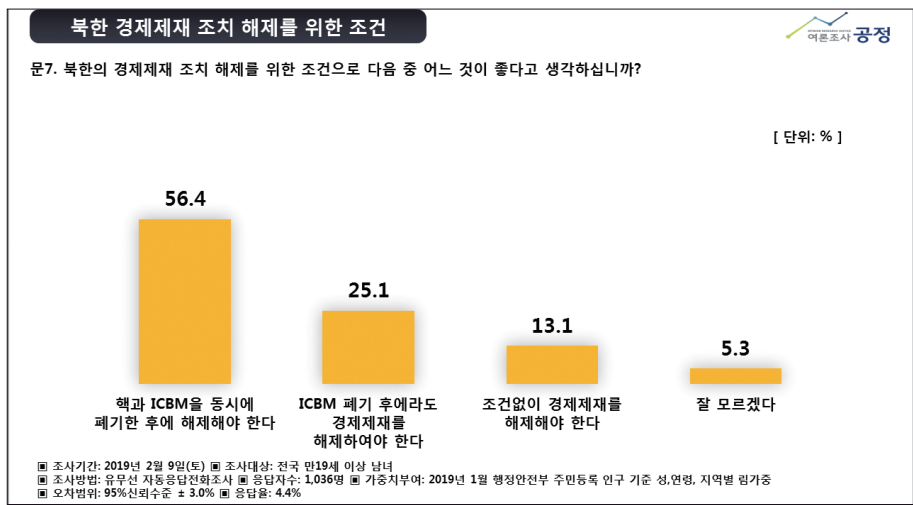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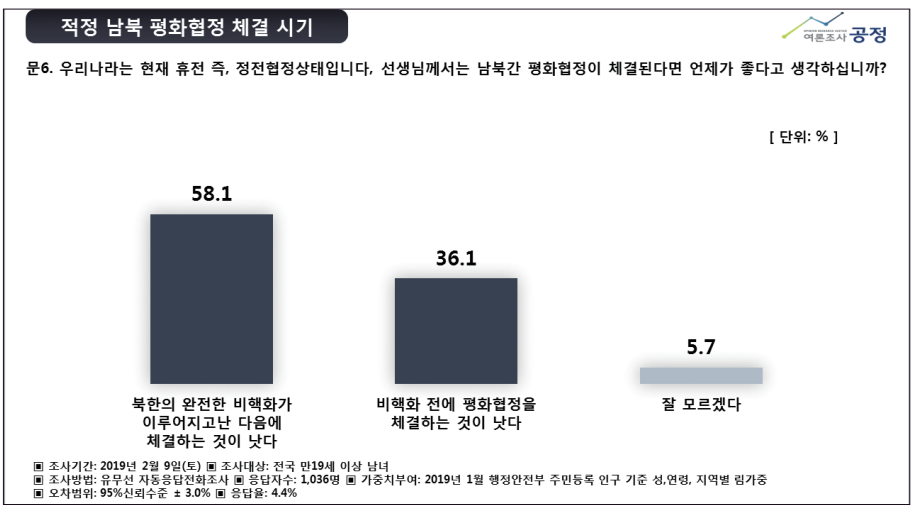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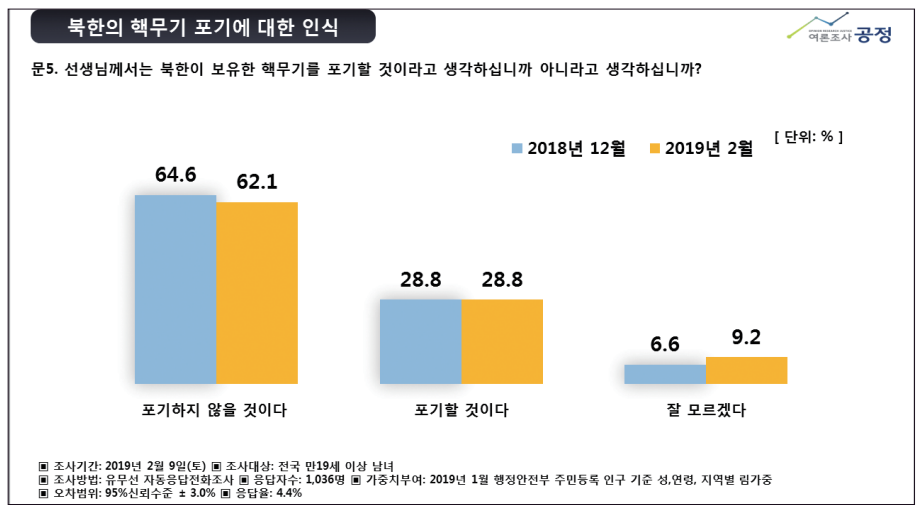
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그분이 남기신 뜻과 비전을 이어가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이 모임을 통해 옥 목사님 사후에 비판을 받고 있는 제자훈련 사역에 대해 뼈아픈 평가를 하며 새로운 도전 앞에 다시 제자훈련의 본질을 붙잡고자 한다”면서 “개교회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

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형제 교회와 동역자들을 돕고 세우며 협력할 때, 지속적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제자훈련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더불어 ▶옥한흠목사의 기념사업: 평전, 영화, 기념관 등 ▶제자훈련 사역 계승: 제자훈련 세미나, 워크숍, 학술 발표 등 ▶제자훈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출판사 운영 등 ▶한국교회 갱신과 연합운동 지원 ▶옥한흠 목사의 정신을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세우기 등

의 활동을 펼쳐나간다고 이야기 하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격려하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같이 서로의 삶과 신앙에 대해 책임있는 관계를 세워감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더욱 신실하게 감당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외에도 “제자훈련 어디까지 왔나?” “제자훈련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의 주제로 제자훈련 포럼도 같이 열린다. 현재 발기인은 2월 11일 기준 149명이 공개됐다.

조은식 기자

국민 64.3% “北核 포기 않을 것” 여론조사 공정, 성인남녀 1,063명 설문조사



‘펜앤드마이크’가 국내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월 9일 하루 동안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자동응답 전화조사를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하여 실시했다.

먼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국민 64.6%가 ‘북한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성, 연령, 지역별 분석결과 모든 집단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만60세 이상(73.0%), 대구·경북(75.4%)에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지정당별 더불어민주당(52.5%), 정의당(50.6%) 지지층에서는 ‘포기할 것이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자유한국당(88.6%), 바른미래당(81.9%), 기타정당(84.5%) 지지층에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한편, ‘포기할 것이다’라는 응답의 비율은 28.8%, ‘잘 모르겠다’는 9.2%였다.

이어 ‘남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언제가 좋을지’에 대해, 국민 58.1%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후 평화협정 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성, 연령, 지역별 분석결과 만40~49세,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북한

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난 다음에 체결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만60세 이상 연령층(68.8%),대구·경북(74.1%), 강원·제주(74.2%)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난 다음에 체결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비핵화 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46.3%로 높게 나타났으며, 만40~49세 연령층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난 다음에 체결하는 것이 낫다’와 ‘비핵화 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 비율이 각 48.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 더불어민주당(59.8%), 민주평화당(51.5%), 정의당(64.1%) 지지층에서는 ‘비핵화 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자유한국당(86.1%), 바른미래당(75.2%), 기타정당(74.8%) 지지층에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지고난 다음에 체결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한편, ‘비핵화 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의 비율은 36.1%, ‘잘 모르겠다’는 5.7%였다.

더불어 ‘북한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를 위한 조건’에 대한 질문으로, 국민 56.4%는 ‘북한 경제제재는 핵과 ICBM을 동시

에 포기한 후에 해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성, 연령, 지역별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핵과 ICBM을 동시에 포기한 후에 해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만19~29세(63.6%), 대구·경북(71.5%) 응답자에게서 ‘핵과 ICBM을 동시에 포기한 후에 해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높았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ICBM 포기 후에도 경제제재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38.5%로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36.8%), 자유한국당(81.3%), 바른미래당(69.1%) 지지층에서는 ‘핵과 ICBM을 동시에 포기

한 후에 해제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민주평화당(51.6%) 지지층에서는 ‘ICBM 포기 후에도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정의당’(37.3%) 지지층에서는 ‘조건없이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ICBM 포기 후에도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5.1%, ‘조건없이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13.1%,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5.3%였다.

이외에도 정당지지를, 2017년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을 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형량 등에 대한 현안 조사가 있었다.

노형구 기자

국내 최초, 연세대에서 세상을 품은 ‘크리스천 필란트로피’

금년 봄학기부터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에서 필란트로피와 신학을 융합(Christianity + Philanthropy)해 기부 문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피하고 있다.

기독교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부와 모금의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수혜자 중심, 결과 중심, 가치 중심

에 근본을 두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시도가 돋보이는 일이다.

강의는 연합신학대학원(원장 권수영)과 일반대학원(대학원장 박승한)에서 ‘크리스천 필란트로피’라는 제목으로 ‘신앙을 근거로 하는 현명한 기부(wise giving),

똑똑한 모금(smart fundraising)’ 주제를 가지고 이론과 실무를 다룰 예정이다.

수업은 워크숍 형태의 코너스톤(cornerstone) 프로젝트로 진행되며 3화점을 부여한다. 이번 강의를 맡은 국내 기부문화의 오피니언 리더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비케이 안(Bekay Ahn) 소장은,

“인간 역사상 기독교와 필란트로피의 통합의 시도는 융합, 통합의 과정을 거쳐, 이제는 단순한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새로운 부의 가치를 창출해 내는 새로운 시대의 단계로 도달했다” 고 말했다.

또한 본 강의 수강 후에는 캠페인 매니저 민간 자격증인 CCM(Certified



한국기부문화연구소 비케이 안(Bekay Ahn) 소장 ©연세대

Campaign Manager) 시험 응시가 가능해,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은식 기자**

김윤희 교수의 ‘성경 에센스’ 공개특강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민족을 위한 성서한국운동(Korea Bible Study Movement)”의 일환으로 성경 66권의 핵심을 5분 여 분량으로 소개하는 “김윤희 교수의 ‘성경에센스’” 공개특강이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5가 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공개특강에는 박성민 목사(한국CCC 대표)가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민족을 위한 성서한국운동(Korea Bible Study Movement)”에 대한 비전을 설명한다. ‘KBS Movement’

은 한국CCC 설립자 김준근 목사가 민족 복음화운동을 전개하면 한국 교회 성도들의 성경 읽기와 공부부를 통한 삶의 변화를 강조하면 시작됐다. 김 목사는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민족”을 도전했다.

이어 김윤희 교수(FWIA 대표)가 “성경에센스” 동영상을 소개하고 활용법을 설명한다.

‘김윤희 교수의 성경 에센스’는 5~6분 분량으로 성경 각 권의 핵심 내용을 자막과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이 영상을

먼저 시청한 후 성경을 읽으면 전체 내용의 흐름을 쉽게 파악하고, 맥을 따라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SNS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그룹이나,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경통독교실에서도 먼저 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성경 통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경 읽기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개특강에는 언론사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나래 기자

www.kogas.or.kr

굴착공사 신고번호
1644-0001

가스안전

바르게 딛는 안전의 첫걸음

굴착신고 및 사전협의는 굴착공사의 처음입니다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사고로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굴착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굴착신고는 필수입니다.

굴착공사 신고절차

굴착공사계획 신고 ● 접수번호 발급 ●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굴착공사개시 통보 ● 굴착공사 시행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크립토나이트 깨기 - 세상을 Change 하라 (고전5:9-13)

◆고린도 전서 5장 9-13절

9.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1.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2.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13.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존 비비어의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책의 본래 제목은 [Killing Kryptonite]입니다. 여기서 '크립토나이트'라는 단어는 1940년대 작가들이 만들어 낸 가상의 물질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슈퍼맨'이 너무 완벽해 자자 사람들은 식상해지기 시작했고, 슈퍼맨의 고향 행성에서 가져온 물질이 슈퍼맨의 힘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설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물질이 크립토나이트입니다. 크립토나이트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슈퍼맨은 평범한 인간처럼 약해지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는 그의 책에서 '크립토나이트'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영적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후에 일어난 무서운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여리고를 함락시킨 강한 군대가 '아이'라는 작은 성에서 패배한 이야기죠.

그 거대한 전투에서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았던 이스라엘 군대가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36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 군대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라는 명령을 여긴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로 야기된 일이지. 그런데 정작 죄를 범한 아간에게 화가 미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 72명이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겪어야 했고, 36명의 아내가 과부가 되었고,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무섭게 질주하며 승리를 맛보던 이스라엘 군대가 순식간에 혼란 속에 빠졌습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수 7:7)

이런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 ‘한 명’이 언약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를 지은 자가 한 명 있다!”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스라엘 사람 중 누구도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아간의 탐욕에 동조하지 않았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존 비비어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영적 크립토나이트’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영적 크립토나이트를 찾아내 아간을 추궁합니다. 그러자 아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7장 20-21절.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라이라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그 무게가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왔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개인에게 참혹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한 개인으로 인해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인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막대하다면,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공동체에 속한 한 개인에게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에 악 영향을 미친 죄에 대하여 사도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문맥으로 보면 교회 밖에 있는 비 기

독교인이 이와 같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이 죄를 다루지 않고 있는 리더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공동체의 리더는 이러한 죄에 대하여 수수방관 했을까요?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혹,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일을 다루어 줘야 부수령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혹은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 재정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유력한 인사는 아니었을까?

혹은 이런 걱정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죄를 지적하므로 인해 교회를 떠난다면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할까 염려가 되어서 말이지요. 죄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혹은 조용히 시간과 기회를 주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평소애 사랑과 용서 그리고 관용을 이야기 하던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권고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쫓아내야 한다./ 사탄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악한 자를 내보내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도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고의적인 죄를 용인하면 그것이 누룩처럼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공동체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신자와 비신자를 엄격히 구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행’이라는 죄가 누룩처럼 번지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지만,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

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영적상태를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친구가 되어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을 ‘신자’라 지칭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바울은 고린도 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도바울은 왜 이리 신자들의 죄에 대하여 강경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누룩’이라는 말과 연관시켜 본다면, 한 사람의 죄가 전염병처럼 번져 나가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신자’를 보호하려다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오전 7시 55분 6초의 항공모함에서 출발한 일본 공군기 353대가 벌떼 같이 하와이 진주만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곳의 미국 해군 기지를 공격해서 21척의 군함을 침몰시키고 117대의 항공기를 파괴하고, 2003명의 사상자를 내고 960명의 실종자와 1100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이 태평양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이 한 사람의 무관심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진주만 기습 55분 전, 정확하게 오전 7시에 태평양에 있는 미군 레이더 기지에서 두 명의 병사가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이더에 이상한 점들이 점점 많아지더니 스크린을 꼭 채운 것임니다. 그 순간 깜짝 놀라서 중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위는,

“걱정마라, 우리 편 비행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5분 후에 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무관심으로 인해 엄청난 비

극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이고, 진짜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죄로부터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서 사도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교만으로 발전합니다. 당연히 죄에 대하여 자기 정당화를 하다보면 교만해질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죄는 변명을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 죄는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찾습니다. 죄인들끼리 뭉치며 죄의 세력을 넓혀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죄인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가 죄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숨겨진 남의 죄를 들춰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원은 처리되지 못한 죄의 문제입니다. 고백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교만으로 이어지고, 자신을 정당화 하다 보니 자주 다른 사람을 헐뜯게 된 것이지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예배시간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 하나님에게도 죄송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조금만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고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처럼 늦게 들어오는 사람을 보는 순간 죄책감이 덮해집니다. “나 말고도 늦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늦게 들어온 사람이 권사님이나 장로님쯤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를 정당화 할 구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었던 시절이예요. 30년 전이예요. 제가 적성 마지막라는 곳에 근무를 했는데 제가 있던 교회는 부대 밖에 있었어요. 거기에 찬양단을 데리고 사역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보니 지금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지휘관들이 허락을 하면 될 수 있었어요. 저희 교회 여에 열 명 정도 찬양팀을 데리고 전방을 다녔으니까 제가 열심히 잘 하니가 옆에 교육관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꿈 같은 얘기죠. 군대였던 병사들이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찬양만하고 있으니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전 그 친구들을 보면서 늘 마음에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저 친구들을 데리고 있는데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저는 군대 아파트에 살 때 차를 타고 불시에 들어가 봤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요, 교회 앞에 질어서도 그렇지만 자갈을 깔아 놓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차를 타고 가면 자갈 때문에 소리가 나면 온다는 걸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애들이 착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밤 11시 넘게 교회를 둘러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10시 점 오시간이 이미 지나서 모두 자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데리고 있던 병사들 찬양단원들이 내부만에 없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서 군중병에게 물어봤더니 목욕을 하러갔대요. “아, 목욕탕이 몇 시에 문을 닫는데 지금 목욕을 해”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계속 종용하니가 읍내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병에게 안내하라고 하고 차를 타고 마지막에 갔더니 찬

양하는 아이들이 술집에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인데.. 가보니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요. 나중에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 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시간에 여기 오는구나.’하고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그때 물론 많이 고민하고 용서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저도 밤에 몰래 오는 구나 싶어 안심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죄가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그 죄가 우리 공동체를 결집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삶의 패턴이 모든 삶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언제든지 정당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하여 아주 무섭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가 아닌 참된 동행으로. . .
‘통제’의 욕구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습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정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니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심경》첫 구절 중에서

다산 정약용, 퇴계 이황, 정조 이산... 그들은 왜 마지막까지 《심경》을 읽었을까?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온 힘을 다함으로써, 그간의 공부를 《심경》으로 매듭짓고자 한다. 아,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 다산 정약용

“나는 《심경》을 얻은 뒤에 비로소 마음을 공부하는 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공부에 뜻을 두고 일어서 평생 분발할 수 있는 힘은 이 책에서 나왔다.” — 퇴계 이황

공부의 마지막에서 도달한 깊은 경지, 마음 마음공부의 ‘끝판왕’이자 지금은 잊힌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 《심경》이 이야기해주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

다산의 마지막 공부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
조용재 지음 | 값 15,000원



내가 단단해지는 새벽 공부
천년의 내공
조용재 지음 | 값 15,800원

창림출판

다. 우리의 삶이 언제부터인가 ‘방어적’이 되어버렸다면 내 속에서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지으면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고 벽을 쌓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대로 인해 자의적인 상상을 하게 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상의 이야기들은 또 다른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참된 관계를 만들어 냅니다.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동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과 돌봄을 통해 담대해 진다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사랑이 공동체를 담대하게 만들어 줄까요?

먼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이기도 한데,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화장실도 못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화제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하다 보니, 자신이 그 자리를 뜨는 순간 그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죠.

누군가 내 뒤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함께 있지만 그 공동체에는 힘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며 지쳐가고 되지요.

존 비비어의 [영적 무기력 계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저자의 친구 중에 미국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실(Navy SEALs)에 근무한 사람이 있어 물어봤습니다. 어떤 부대보다도 끈끈한 전우애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יי쑤.

“네이비 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나중에 생각합니다. . .

우리는 옆에 있는 전우를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등 뒤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전우들이 뒤를 받쳐줄 것을 알기 때문이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갑옷이 전부 앞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뒤를 막는 갑옷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의 뒤를 책임져 주기 때문이쑤.

강한 부대는 절대로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한 사람의 게으름으로 인해, 한 사람이 약해짐으로 인해 부대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강한 부대는 누군가 내 뒤를 지켜주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에 나오는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서양의 기독교 제국들이 동양의 이슬람

제국들과 충돌했던 13세기 십자군 전쟁 당시 세상을 살았던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를 봐도 사랑의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19년 이집트에서 십자군이 술탄 말릭 알 카밀의 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일 당시, 프란체스코는 십자군 사령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술탄을 찾아갔다.

다들 술탄이 무자비한 괴물이며 적진에 들어갔다가는 무시무시한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충만한 프란체스코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는 무기도 신발도 없이 달랑 걸옷 하나만 걸친 채 전선을 건넜다. 놀란 이슬람 병사들은 뭔가에 홀린 듯 그를 술탄 앞으로 인도했다.

“주님의 평안이 왕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인사하며 자신을 십자군이나 유럽의 왕 혹은 교황의 사자가 아닌 “예수님의 사자”로 소개했다.

프란체스코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챈 왕은 그를 귀빈으로 초대해 그곳에 머물게 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며칠 동안 함께 식사를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알고 보니 술탄은 미개한 폭군이 아니라 마음이 꽤 열린 철학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프란체스코에게서 예수님에 관해 더 배우기를 원했고, 프란체스코도 겸손한 자세로 술탄에게서 배웠다.

두 사람은 환대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피의 시대 한복판에 평화의 오아시스를 세웠다. 종교가 성벽을 세우고 전쟁을 촉발시키는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장벽을 허물고 치유를 가져온다. 오늘날 세상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던가.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치를
유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참 믿음을 온전히 줌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며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특별히 율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하여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누락을 조심하라는 것이 이 세상을 떠나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즉,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를 배워야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크리스천들의 삶은 크게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세속화된 크리스천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세속에 물들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이 되면 훌훌 털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죄를 짓고, 교회에 와서는 회개하는 삶이 반복되는 유형입니다. 어쩌면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이 자신에게 면죄부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런 세속화된 크리스천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4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세상에서 살고 구별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규범은 하나님의 평가에 달린 문제이지, 자신의 기준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세속화된 크리스천들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옵니다.

세속화된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만나게 보입니다. 조금만 협박을 해도, 조금만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 같아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 세상이 우습게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인들뿐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 불뼉을 행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조롱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 중에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를 인도하지만 평일에 술집에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 한 교인을 만났는데 서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자주 가던 술집의 마담을 그 교회에서 만난 것입니다.

만나교회의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수치스럽게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한 목사님이 숨어서 담배를 피다가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가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에서 주일에,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숨어서 한다면 올바른 크리스

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이런 세속적인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둘째는, 금욕적인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에세네파’라 하여 아예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고대와 중세의 수도원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혼탁한 세상에서 깨끗한 영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그 어떤 영성훈련장에서도 죄의 문제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결국 인간이란 죄의 문제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싫어서 떠나도 그 싫은 부분들이 그 곳에서도 역시 존재하는 것이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신앙촌’을 기억하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마을을 만들어 살겠다고 했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신앙촌에도 술집이 생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크리스천 공동체를 형성해 모이십니까?

신앙적인 모임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영성을 지켜줄 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가 사회성을 상실해 버린다면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대개 삶을 쉽게 살려는 편의주의에서 시작됩니다. 삶에서 고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끝까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의 투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명 받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목회자로 부름 받았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사실 이 시대는 목회자보다 삶에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도피할 곳이 없습니다.

◆셋째는,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바울이 이야기 하고 싶은 크리스천의 유형이 여기에 속합니다. 10절.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유행과 탐심, 속임, 우상 숭배라는 삶

의 현실에서 떠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크리스천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지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빛’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싱거운 음식에 맛을 내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감증’을 유발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을 구체화 하느냐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Opinion Leader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삶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시편 15편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요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크리스천들은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합니다. 역사를 보세요.

나치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들라면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디트리히 본 회퍼 라는 젊은 신학자를 들 것입니다. 당시 많은 신학자들이 나치의 꾀박을 피해 미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본 회퍼는 그 곳에서 의로운 싸움을 하다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의 사상과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 전쟁 때 수백만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천들이 아주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아무 힘들어도 죽음을 각오하고 크리스천들이 그 자리를 지켰더라면 오늘날 북한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천은 어려움을 피हे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곳에서 자리를 지키는 성숙한 크리스천들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서 그 가정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직장이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떠나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나마 당신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직장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좀 고통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필요하지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말씀이지만, 고린도 전서 7장 14절을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믿음의 모델을 제시하는 족장들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사를 다니면서 전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사를 지내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올 때마다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양보하고 떠나고,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지요.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 .”

아름을 보세요.

그가 집을 떠나 하란에서 외삼촌과 함께 살아가 하던 때, 그곳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그 외삼촌의 집이 축복을 받았습

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가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머물 때, 요셉의 신실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고 그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았고 애굽 전체가 축복을 받았습

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살아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삶에서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겨내다. 나아가다.

Since 1933 대한민국 **진통소염제**

안티푸라민®

☒ 근육통 ☒ 관절통 ☒ 어깨통증

광고심의필 : 2018-1465-000502 | 부처님이 아픈 손이었나? 천부적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읽다. 안티푸라민을 읽다